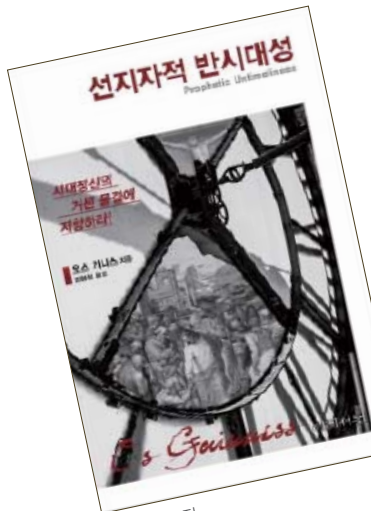


서평 『선지자적 반시대성』

진정한 적합성



오스 기니스 저
김형원 역
이레서원

몇 해 전 “In Time” 이라는 영화가 한국에 소개되었다. 이 영화는 시간을 돈으로 사용하는 가상 사회를 통해 현대 자본주의를 비판하였다. 이 영화에서 지배층은 막대한 시간을 독점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노동자들은 급료로 시간을 받는데, 그것은 고작 출퇴근을 위한 교통비와 하루 먹고 살 식료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면 끝날 정도였다. 작가가 상정한 이 가상 사회는 ‘하루살이’라는 표현이 극도로 잘 어울리는

곳이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시간의 굴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사회에 적합하게 사는 것이 운명이라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어떤 사회든 <송곳>과 같은 인물이 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어머니를 만나러 가던 주인공은 눈앞에서 어머니가 몇 초가 부족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죽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이때부터 주인공은 무엇인가 잘못 되었음을 깨닫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히 출입이 통제된 중심부에 들어가기로 결심한다.



오스 기니스는 『선지자적 반시대성』 (Prophetic Untimeliness)에서 위 영화의 주인공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기독교인들에게도 던진다. 계몽주의와 과학혁명을 통해 시계는 더욱 정밀화, 소형화, 대중화 되었고, 이를 통해 생긴 새로운 시간 개념은 사람의 인생을 분, 초 단위로 나누어 계량화하기 시작했다. 시간의 계량화와 산술화는 인간의 노동의 양과 가치를 숫

자로 환원할 수 있게 하였고, 이는 노동은 시간이고 돈이라는 등식을 만들게 하였다. 이러한 시대의 특징을 오스 기니스는 정밀성, 조정성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강요하는 압박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가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시간의 한시성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이 구도 속에 적응하고 안주하여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영원을 향한 갈구와 반시대성을 불편하고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오스 기니스가 시간 속에 있는 인간의 한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는 기독교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타락의 고통은 결국 시간에 속하지 않는 초월적인 곳에서 들어온 어떤 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스 기니스가 보는 현대 복음주의의 기독교는 너무나 시간 속에 깊숙이 들어가 동화 되어 있다.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최근의 모든 고결한 선언서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 공동체의 상당수가

역사적인 전환을 이루었다. 그들은 오직 성경에서부터 오직 문화로 권위를 이전하였다.” (99)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내적이며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외적인 기준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며, 유행과 대중에 영합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결국 “한 명의 청중, 즉 유일한 청중의 인정을 구하는 대신,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모래더미와 같은 대중의 의견에서 인정을 구하고 있다.” (113)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사회 속에 가치 있는 자와 집단으로 인정받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세상을 변혁하는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며, 내용 없는 구호와 잔치만 무성한 광신자적 집단으로 전락시킬 뿐이다. 그럴수록 세상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귀감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에 별로 유의할게 없는 그저 그런 집단으로 볼 뿐이다. 과거 사회진화론이 사회가 계몽되면 결국 종교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말이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기독교 자유주의가 기독교를 철학이나 문학처럼 만들어 차별성 없는 정체



이춘성 국제 라브리 선교회에서 간사와 국제 위원으로 사역 했으며 합동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였고 고신대학원에서 기독교 윤리학 박사 과정(Ph. D.)에 있으며, 세종시에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성을 상실한 종교로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오스 기니스는 복음주의가 이러한 고전적 자유주의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어느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는 이러한 현상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그럴 때 신조는 옆집의 불신자 또한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것이 된다.” (101)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고백하는 신조(신앙고백)가 어떤 종류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내가 고백하는 내용이 고작 몇 마디 안 되는 구호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이해 못하고 말하는 것이라면, 또한 내가 고백하는 내용이 혹시 남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생소한 것이면 어떡하지 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불편함이 있다면, 그는 절충이라는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으며, 그의 기독교 신앙은 그를 지탱하는 기둥이

라기보다는 액세서리임이 분명하다. 오스 기니스는 현대 복음주의가 이런 상황에 있다고 냉정하게 평가한다. 그리고 복음, 말씀에 신실한 자로 거듭나라고 주문한다. 그는 이렇게 질문한다. 마치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을 본 후, 감동에 흠뻑 젖어 마지막 자막이 모두 올라간 후에도 자리를 뜰 수 없었던 것처럼 주일 예배의 설교 후, 그 자리에 앉아 어쩔 줄 몰라 하며 기도 했던 기억이 언제였던가? 절대적인 말씀의 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부정하고 싶은 깊은 절망감과 고통을 느낀 적이 있었던가? 언제나 긍정하며, 행복이라고 외치는 강단의 기분 좋은 설교 앞에서 이것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그가 기독교를 고통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정을 통해 긍정에 이르는 바른 과정이 없이, 현대 복음주의 기독교가 무턱대고 긍정과 성



공만을 외쳤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교회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깊은 성찰이 사라진 가벼운 자들의 알팍한 공동체라는 평가만 남겨졌다. 이런 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죄의 고백과 용서, 진리를 위한 헌신이겠는가? 아니면 달콤한 과자와 음료로 가득한 잔치겠는가? 그러기에 오스 기니스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청중이 아니라 메시지가 주권을 쥐고” 있는 교회라고 역설한다(100).

하지만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사회에서 부적응자라는 수식어, 이에 따르는 초조함,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거부함으로 일어나는 실패 등이다. 그러나 오스 기니스는 우리의 존재 이유는 성취나 어떤 행함에 있지 않다고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시

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부르심받았기에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다(140). 그러므로 부르심과 소명은 존재라는 기초 위에 서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며, 사실 하나님에게 실패가 없기에 하나님의 영원의 시각 속에서 이는 분명 성공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우리는 단지 그렇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성공을 확인하고 영광을 얻기 위해 부르심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반시대성, 시간을 넘어서는 관점(영원)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지점에서 있는 우리 자신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진정한 적합성(relevance)은 무엇일까? 프랑스의 기독교인 여성 철학자인 시몬느 베이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항상 적합하길 원한다면 영원한 것을 말해야만 한다.” 진정한 적합성은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그 어떤 분에게 있다는 것이다. 바로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분에게 다가갈수록, 더욱 알수록 세상에서 가장 적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신앙이며 믿음이다. 오스 기니스는 그의 책을 끝맺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알고도 죽지 않을 정도)을 알기를 열망하는 자들만이 영원한 관점을 견지할 수 있으며, 그래서 무엇이 진실로 적합한지 결정할 수 있다. 시간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것을 계속해서 접촉하는 것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시대에 적합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171) 